

“클럽 문화 선입견 없이 모두가 즐겼으면”



‘심해’ 대표 김다혜(오른쪽)씨와 이대로씨.

‘발산마을 재생’ 청년 주축 EDM 클럽 공연 단체 ‘심해’ 전국 각지 돌며 디제잉파티 내일 광주 플랫폼라운지 공연

20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EDM(일렉트로닉 댄스뮤직)이 어느새 주류 음악으로 자리잡고 있다. 월드디제이페스티벌과 울트라 코리아(UMF)는 국내 대표 음악 페스티벌로 인지를 굳혔고 가수 구준엽·코미디언 박명수 등 연예인이 디제이로 변신하면서 EDM 등 클럽 음악이 대중매체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4번째 EDM 장르 위주로 클럽 공연을 이어오는 단체가 있다. 컴플렉스 콘텐츠 그룹을 내건 ‘심해(深海)’에는 30명이 소속돼 총장로·전남대 후문·상무지구 등지에서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30대로 아마추어 디제이로 활동하고 있다. ‘DND’로 활동하는 디제이 박세웅(26)씨와 디제이를 공부하고 있다. 박씨는 최근 프랑스 하우스레이블 ‘Drop Fire Records’를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7일 오전 ‘다다’(DADA)로 활동하고 있는 김다혜(28) 심해 대표와 공연 기획을 맡고 있는 이대로(32·활동명 MORO)씨를 만났다. ‘올빼미쪽’ 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아침부터 광주시 서구 양동 청춘발산



박세웅(활동명 ‘DND’)씨가 지난해 9월 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 디제이 페스티벌에서 디제잉을 하고 있다. <심해 제공>

마을의 한 공방에서 만날 수 있었다.

심해는 지난 2016년 2월 발산마을 재생 사업에 뛰어든 청년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두 사람은 발산마을을 기반으로 디제이와 행사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팀원들의 공통 분모는 각종 페스티벌에 빠지지 않는 ‘프로 참석러’라는 점에 있다. “삼삼오오 전국 각지의 디제이·락페스티벌에 다니면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노는 건 자신 있으니 클럽 파티를 여는 것부터 시작했죠. 객석이 아닌 턴테이블에 자리했을 때의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심해의 주체할 수 없는 흥은 광주를 넘어간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신촌 스타트업거리축제 ‘IF2018’에 참가하고 충남 서천 ‘한산모시문화제’에서 디제잉파티를 열어 조종했던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

다. 심해가 3회째 열고 있는 발산마을 ‘디스코 핑키 파티’의 주 손님은 발산마을 할머니들로 드레스코드는 ‘뽀뽀’이고 막걸리와 파전이 필수다.

점차 판을 벌인 심해는 지난해 9월 ‘광주 디제이 페스티벌’을 열어 소원 성취했다. 1박2일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 축제에는 요한 일렉트릭 바흐(J.E.B)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디제이 6팀이 무대를 빛냈다.

“축제가 열리기 세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 예보가 있었는데 막상 파티가 시작되고 나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이 도운 셈이죠. 어르신부터 청소년, 어린이, 외국인들까지 마지막 무대에서는 관객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며 춤을 췄는데 땅이 흔들리는 줄 알고 겁을 먹은 정도로 흥이 대단했어요.”

심해는 오는 4월 펀딩 모금을 시작하며 두 번째 디제이 페스티벌을 준비한다.

“클럽 버닝썬 파문으로 클럽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클럽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는 야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심해의 공연은 오는 9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클럽 플랫폼라운지(광주시 동구 금동 7-1)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 노래 부문 후보에 오른 ‘퓨어 100%’와 디제이 크루 ‘Subbeat’로 활동하는 ‘윤지’가 출연한다.

만 19세(2000년생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공연이 원칙이다. 입장료 1만원(음료 1잔 포함). 문의 010-7285-705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테너 김태형 귀국 독창회 15일 광주 금호아트홀

독일 에센폴크극단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테너 김태형(35·사진)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독창회를 연다.



사했다. 김태형은 이날 헨델의 성악곡 ‘메시아’로 문을 연 뒤 베토벤의 연가곡집 ‘멀리 있는 연인에 게작품 98’을 무대에 올린다. 이어 로

김씨는 전남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한 뒤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재학 시절 독일가곡협회공쿠르 등 유수 대회에서 입상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피아노과 정임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김대진의 ‘토요콘서트’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 독일에서 공부하며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등 작품에 출연했다. 최상호, 김대수, 정영기, 볼프강 밀그램을 사

시니의 ‘엄숙한 소 미사곡’과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로미오의 아리아 ‘아, 태양아여, 솟아올라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피아니스트 이지은이 반주를 맡는다. 전석 1만원. 문의 010-5354-144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예술가 아트마켓·해설 있는 클래식

광주 서구문화센터 내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센터장 이운기)는 9일 예술가 아트마켓과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를 연다.

오전 11시 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리는 클래식 공연은 ‘서구사랑방아카데미-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Ⅶ’ 행사 중 하나로 라이브 연주와 함께 해설이 곁들여진다. 연주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로 구성

된 4인 앙상블 ‘The BASIC’와 베이스 장문석이 함께 하며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정상연의 해설이 이어진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로비에서 열리는 아트마켓에는 센터 강사와 회원들이 참여해 도예, 퀼트, 은공예, 천아트, 홈패션, 야생화지수, 규방공예 등 다양한 수공예 제품을 판매한다. 문의 062-654-432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폴리Ⅳ 공모 ‘무등의 빛’ 선정

김민국 건축사·이이남 작가

광주폴리Ⅳ(관문형 폴리) 기본 및 실시 설계 작품 현상공모 당선작에 ‘무등의 빛’(사진)이 선정됐다.

광주시와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시정체성을 담은 관문형 폴리작품을 조성하기 위한 광주폴리Ⅳ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관문형 폴리는 광주 구도심 곳곳에 소형 건축물을 설치했던 지난 광주폴리를 광주 진입로인 광주틀게이트로 확장한 것이다.

당선작(계획 및 실시설계권 1억원) ‘무등의 빛’은 광주의 김민국(주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가 협업한 작품으로 의향, 예향, 미향의 ‘삼향’을 지닌 광주다움을 비롯해 광주의 멋과 맛이 빛을 통해 세계

공동체에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심사위원단은 ‘무등의 빛’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빛의 도시로서 ‘광주다움’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무등산으로 형상화해 미학적으로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심의와 보완 설계를 거쳐 작품을 설치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11점이 접수됐으며 우수작(상금 1000만원)은 ‘광주다움’(에이스월드건축사무소 이순조 건축사·주원제 건축가), 가작(상금 500만원)에는 ‘빛·살문’(향인건축사 사무소 최준호 건축사·미디어 작가 이지현)과 ‘빛고을광주’(은누리건축사무소 김상철 건축사, 조주희·김성·김부희 건축가)가 선정됐다. /김미은 기자 mekim@

‘로hing야 난민의 여정에 함께 합시다’

15일까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갤러리 현 조진섭 사진전

군부 독재의 폭압을 견뎌온 아용산 수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를 외치며 미얀마에 민주주의 바람을 일으켰지만 미얀마 군부의 인종학살에 침묵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군부는 2016년과 17년 라카인 주 소수 민족을 폭압하기 시작했고 인종학살마저 자행했다. 폭력, 살인, 구금, 방화, 강간 등을 겪은 무슬림 소수민족 로hing야족은 생존을 위해 탈출을 시작했고 현재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70만 명이 살고 있다.

난민캠프 모습을 담은 ‘로hing야 난민 사진전-난민의 여정에 함께 합시다’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갤러리 현에서 열린다. 광주인권평화재단의 준비한 이번 전시에서는 조진섭 작가가 촬영한 사진 14점을 만날 수 있다. 천진난민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처참한 난민촌 모습, 팽한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늙은 난민들의 모습 등이다. 프랑스 파리 사진학교 아카르 포토를 졸업하고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로 활동중인 조 작가는 프랑스 칼레의 아프리카 난민, 독일 정착 시리아 난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로hing야 등을 취재했다. 광주인권평화재단은 광주의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까지 많은 국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구촌 곳곳의 정치, 사회, 제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연대하고 있다. 특히 로hing야 대량학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아시아인권평화재단과 함께 로hing야 난민 기



‘방글라데시 하킴파라 난민촌’

록사업 등을 진행중이다. 문의 062-234-273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